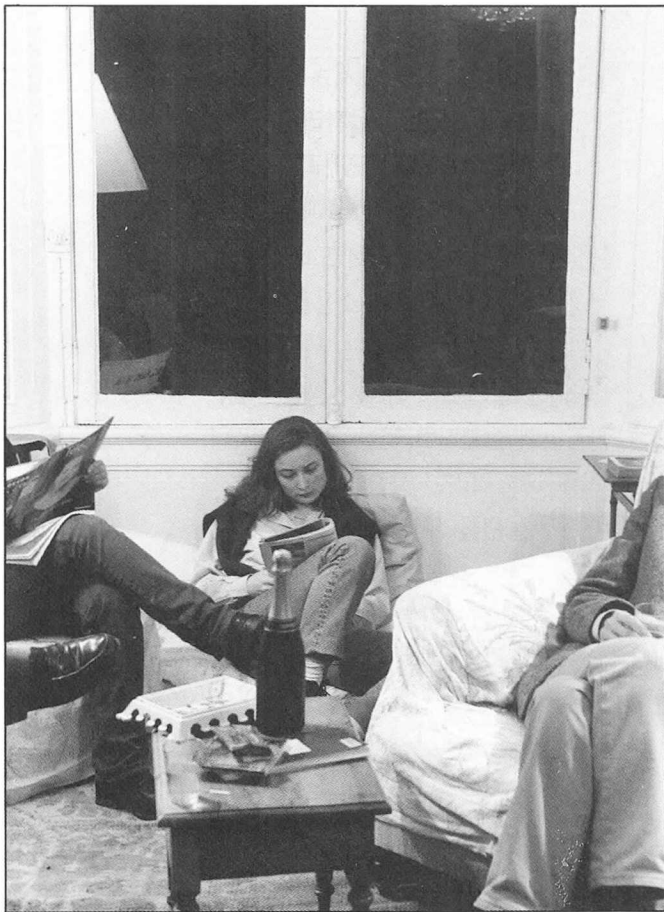


‘따로 또 함께’ 하는 우리 곁의 책

3 저녁식사 전의 책 뒤적이기

정진국 · 미술평론가



질리의 할머니 별장에서.
(사진/정진국)

방송국에서 음악 프로그램 제작을 맡고 있는 질리가 어느날 우리를 브르타뉴의 할머니 별장으로 초대했다. 밤새워 춤추고 놀기에 앞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친구들은 잠시 거실에서 잠이며 책을 뒤적이는 짬을 즐기고 있었다. 밖에서는 에머랄드 해안이라는 동네 이름값을 하려는지 보석처럼 쌀

쌀맞은 바람이 유리창에 부서지곤 했다.

시간의 단편 속에서

잔치는 초조하게 기다리지 않아도 좋을 만큼 차분한 것일 때에 더 즐거운 것이 된다. 방정을 떨며 오가는 대신에 한잔의 식전주와 독서로 열정을 다스릴 여유를 가질

때라면 말이다. 숨을 고르고 완급을 조절하는 데에는 아령이나 체조보다는 독서가 상책이라는 듯이.

밤을 불태우기 전에 전열을 가다듬는 데에는 읽을거리가 최고라는 것일까. 하기야 비바람 몰아치던 오후의 해변 산책도 마쳤겠다, 구식 도너스 SP판도 걸었겠다, 소스는 푹푹 끓어오르고 있겠다, 밤도 이윽고 깊어가고 있겠다, 어수선한 수다로 이런 분위기를 깨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유럽 여인의 모나고 당당한 얼굴 윤곽이 아름답다는 놀림에 잠시 얼굴을 붉혔던 질리가 자연스레 집어들 책 한 권이 없었더라면 그녀는 달리 그 어색함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탄장을 부리면서 수줍음으로부터 벗어나는 모습이 정말이지 자신의 매력인 줄을 알거나 한다는 듯이 그녀는 책을 들고 자리를 잡았다. 그러자 누가 먼저고 나중이고 할 것 없이 모두들 불현듯 독서의 시간으로 돌입했다.

서로 모른 척할 수 있는 이 가벼운 어색함과 산만한 집중의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짬짬이 챙기고 싶어하는 시간의 단편은 아닐까. 꼭 막힌 것 같으면서도 각자의 출구가 따로 있는, 좁은 골목을 천천히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 말이다.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킁킁한 창 속의 실루엣이 누구건 아랑곳하지 않고서.

이럴 때, 책 대신 카메라를 집어든 내게는 상상을 펼칠 날개란 없다. 그 대신 먹이를 찾는 굶주린 올빼미나 부엉이처럼 두 눈

을 부릅뜬 뿐이다. 후경의 어둠을 앞에 두고 렌즈를 겨눌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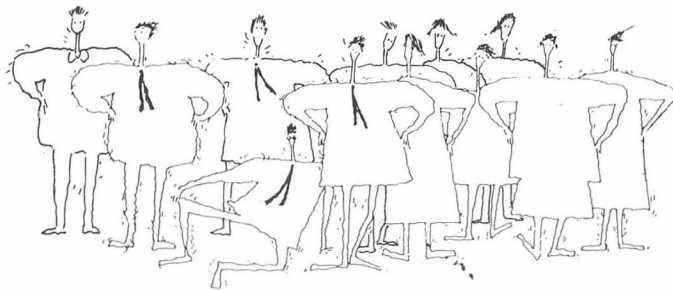
사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책을 읽을 시간이란 쉬이 찾아오지 않는다. 더구나 여행 중이라면 차창가에서나 침대 머리맡에서나 찾아올까, 그것도 특별한 짬이 없을 때라야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책은 시간의 간헐적인 공백을 메워 주는 불가분한 도구인 것 같다.

함께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살짝깎 발을 뺄 수 있는 그럴싸한 핑계라고나 할까. 각자가 나름의 읽을거리를 찾아서 언젠든 뿔뿔이 흩어져 제몫의 고독 속으로 침버덩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런 해산이 전적인 해체인 것만은 아니다. 그는 그녀의 책을 훑쳐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녀는 그의 책장을 넘겨다보고 참견할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읽을거리를 다리삼아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화제 또한 시시결결한 정치나 그렇고 그런 일상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국어 시간에 큰소리로 읽는 친구의 목소리를 따라 문장을 짚어나가던 그런 시간처럼 똑같은 책을 함께 읽어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둘러앉아 책을 들여다보는 시간은, 언제나 너와 혹은 그와 이 행간 저귀절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다.

독서란 애당초 필사본 책을 둘러싸고 큰소리로 함께 읽어야 했던 중세의 어느날 일처럼 공동작업이라는 점을 확인하려는 듯이



POINT-LINE

”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열두명이 모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와 색다른 눈과
감각으로 일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 일러스트레이터 12인과 우수편집팀과
아이디어맨으로 구성된
포인트·라인
최고만을 고집합니다.
”



포인트라인은 픽처북 스토리북 표지일러스트와
캘린더 카드 참고서 교과서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으며, 모든 광고와 표지 본문 디자인 또한 색다른
시각으로 기획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의 일러스트 기법으로는 종이 인쇄
일러스트나 수채화, 유화, 지점도, 모래
그림등 기타 기법으로 제작하여 드립니다.
포인트라인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유아대상 출판과 아동출판 기획을
자신있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꼭 만족하실 것입니다.

미국 산업의학에 큰 자취 남긴 여의사

《닥터 앨리스 해밀턴》을 읽고

나해철 · 나해철의원 원장 · 시인

말이다. 그러나 중세의 독서가 암송에 바탕을 둔 엄숙한 의식적 행사였던 것에 비한다면 우리의 독서는 별것 아닌 시간 때우기가 십상이다. 별도의 시간을 바쳐야 한다기보다는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것처럼 되었으니까.

밥 한 그릇과 물 한 사발 앞에 두고 기도하기보다는 봉투의 위력에 우리의 신앙과 참회를 맡기는 데에 익숙해졌듯이, 우리에게 독서에 바쳐지는 제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취미란 독서를 적어내는 사람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학습이나 직업적인 연구와는 구별되는 또다른 독서의 차원이 생겨났으니까.

눈길만 주어도 기꺼운 책

인쇄술을 개발하고 정작 근대적인 형태의 책을 만들었던 구텐베르크가 기뻐 날뛰기보다는 이제 책이 흔해빠진 것이 되어 사람들이 되레 책을 덜 읽지 않을까 걱정했었다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려온다. 그렇더라도 책을 덜 읽는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단지 책을 대하는 우리의 몸짓과 마음가짐이 옛과 같지 않음은 분명하다. 책을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나 할까.

모조리 암기하기 전에는 감히 그 책을 펼칠 수조차 없었던 그런 시대의 책은 우리의 헌신적인 사랑을 요구했지만, 지금 우리 곁의 책은 단지 눈길을 주고 손길을 내밀기만 해도 그 웃고픔을 풀어헤치는 것이다. ❖

직업이 의사인 나는 부끄러울 때가 많다. 훌륭한 의사에 대한 기록을 읽을 때 특히 그렇다. 이번에 인연이 닿아 아주 훌륭한 의사이며 존경할 만한 한 지식인에 대한 책을 읽게 되었다. 물론 스스로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며 많이 부끄러웠다.

《닥터 앨리스 해밀턴》은 의사 앨리스 해밀턴의 자서전이다. 앨리스 해밀턴은 1869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하여 1970년 101세의 나이로 사망한 분인데, 나이 70세가 넘어서 이 자서전을 기록하였다. 이 자서전은 의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선구자적인 위대한 인간의 기록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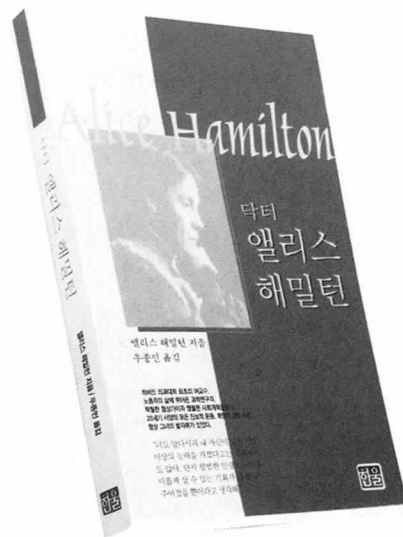
그래서 의사들만이 아니라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닥터 앨리스 해밀턴》을 읽음으로써 큰 감동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앨리스 해밀턴은 여성이다. 19세기 후반에 태어나 성장하고 사회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여성의 몸으로 선구자적인 일을 했다니! 그러나 앨리스 해밀턴은 여성의 몸으로 사회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제약을 이겨내고 한 인간으로서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이 자서전을 읽으며 갖는 느낌 중의 하나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는 남성·여성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앨리스 해밀턴은 의사가 되면 자기가 가

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 머나먼 이국이든 아니면 도시의 빈민가든 갈 수 있고, 또 어디에 가든 분명히 쓸모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의학을 선택했다고 말한다. 앨리스 해밀턴의 생각은 지금 의사가 되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훨씬 넓게 열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 역사가 될 일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에 산업의학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 산업의학의 자료가 독일·영국·오스트리아·네덜란드·스위스·이탈리아·스페인에는 있는데 미국 의학잡지나 교과서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왔을 때, 앨리스 해밀턴은 미국에 산업 의학을 확립시켰다. 남과 다른 중금속에 완전히 노출된 채 그것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공해병을 앓고 불구가 되고 목숨을 잃을 때 미국 최초로 그녀는 공장을 찾아가서 중금속의 오염과 해독에 대해 연구하고 보고서를 쓰고 공장의 경영자들을 설득하였다. 앨리스 해밀턴은 여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의사로서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수많은 공장들의 작업 환경을 개선시키고 미국에서 공해병을 추방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래서 디트로이트 의학신문같은 데서는 '해밀턴이라는 이름은 직업성중독에 대한 인식 및 연구의 발전과 그 궤를 함께한다' 라고 쓰고 있다.



우리나라 작업장의 환경들도 앨리스 해밀턴이 한창 활동하던 때인 20세기 초중반 미국 공장의 작업 환경에서 조금 나아진 것에 불과할 것이다. 물론 산업의학도 아직은 많이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은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사회도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아 주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닥터 앨리스 해밀턴'이다. ❖

한울/A5신/440면/8000원

호클 전문출력센터

Windows95 Windows 모든 응용프로그램 Corell DRAW Photoshop

호클 All Version 호클 96

출력 분판/필름/인화지/레이저

漢字 100% 고어 완벽 지원

편 점 · 조 판

아직도 조판을 외주에 의존하십니까?

이제 손쉬운 단행본부터 사내에서 직접 조판을 소액에 보습시오. 귀사에 단 한 대의 컴퓨터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면 한푼의 투자없이 조판비를 반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디즈레트로 인쇄되는 원고라면 이제 PC를 이용, 직접 작업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기술적인 면 등 조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저희 삼화가 책임져드립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삼화전산

Tel:263-2651/3 Modem:277-8097/8 Htel:sawh

상담:강종욱 실장

찾아오시는 길

